

## 고려 불교 의학의 한 단면

— 승려의 질병과 치료 —\*

이 현 숙\*\*

- |                |              |
|----------------|--------------|
| I. 머리말         | 4. 죽음에 이르는 병 |
| II. 승려의 질병     | III. 치료      |
| 1. 발배          | 1. 고승        |
| 2. 풍병과 이질      | 2. 일반 승려     |
| 3. 운동기계 질환과 기타 | IV. 맺음말      |

### I. 머리말

불교 의학은 한국 고대 사회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의학 발달에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sup>1)</sup> 승려는 군인처럼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책이 준비되어야만 하는 존재이므로 일찍부터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대책을 내포한 계율이 불교에서 발달하였다. 불교 승려와 신자가 지켜야할 각종 계율을 서술한 『십승율』, 『사분율』, 『마하승지율』에는 목욕과 양치, 손 닦는 법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는 현대에 와서도 여전히 질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신라의 元曉(617~686)와 勝莊(?~?)과 같은 고승들이 주석을 달았던 『금강명경』에는 불교 의학에 대한 기본지식들이 담겨있기도 하다.<sup>2)</sup>

이처럼 승려는 불경을 암송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불교 의약과 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었으며, 전문 치료를 받기 어려운 고려시대 민간에서 사찰은 의약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로 자리매김하였다. 고려시대 귀족들은 중환에 걸리면 사찰에 가서 양방을 하기도 하였으며, 사찰에서 임종을 맞는 사례가 많았다.<sup>3)</sup>

고려시대에는 불교사찰과 승려들이 국가의 구휼사업을 대행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고려 광종은 개경 동북쪽 경계에 있던 귀법사에 제위원을 설치하여 구휼사업의 중심 역할을 맡도록 하였다.<sup>4)</sup> 또한 숙종은 제위보에서 춘궁기에 진휼을 담당하고 임진현 보통원에서는 행려자에게 음식을 3개월간 지급하도록 하였다.<sup>5)</sup> 인종대 개경 시내에는 빈민의 아사를 방지하고자 미음을 나누어 주는 승려들이 있었다.<sup>6)</sup>

고려시대 승려 중 의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 질병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종의 발병을 치료하여 출세하게 된 이상로는 승려에게서 의술을 배워 민간의가 되었다가 관의로 출세하였다. 그는 장년의 나이에 방랑 생활을 하면서 슬픈과 몰려 다녔는데, 산중의 승려에게 의술을 배운 후 醫를 본업으로 삼았다고 한다.<sup>7)</sup>

고려시대 활약하였던 대표적인 의승으로 먼저 운문사 圓應국사를 들 수 있다. 원응국사는 경·유·론 三藏을 깊이 연구하였고 대반야경에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12-8-1486).

\*\* 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연구교수

1) 불교 의학에 대한 연구성과는 주로 고대에 치중되어 있다. 여인석·박형우, 「우리나라 고대 불교의학의 한 단면: 원효의 경우」 『의사학』 4-2, 1995; 손홍렬, 「삼국시대의 佛敎의학」 『韓國佛敎文化思想史』 上, 1992, 116~142쪽; 이현숙, 「질병, 치료, 종교: 한국 고대 불교의학」 『한국사상과 문화』 48, 2009, 141~180쪽.

2) 이현숙, 앞의 논문, 2009; 오재근·전종욱·신동원, 「신라 승려의 『금강명경』 『제병품』 주석을 통해 살펴본 한국 고대 불교의학」 『의사학』 25-3, 2006 참조.

3) 이현숙, 「고려시대 관료제하의 의료와 민간의료」 『동방학지』 139, 2007.

4) 이경록, 「고려시대 의료의 형성과 발전」, 해안, 2010, 96~98쪽.

5) 『고려사』 권80, 식화3 진휼 水旱疫癘賑貸之制, 숙종 6년 4월 조서; 이경록, 위의 책, 2010, 97쪽.

6) 『高麗國經』 권23, 雜俗 施水.

7) 『고려사』 권122, 열전35 이상로.

통달하여 반야삼매를 얻게 되자 인간의 질병에 대하여 귀천을 불문하고 진찰만 하면 효험이 있었다고 한다.<sup>8)</sup> 이외에도 趙簡의 어깨와 목에 난 종창을 수술한 승려와<sup>9)</sup> 충혜왕의 애첩 황씨의 임질을 고친 승려 福山을 들 수 있다.<sup>10)</sup>

지금까지 불교 의학에 대한 연구 대부분이 승려들이 치료를 행한 사례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승려가 질병에 걸렸을 경우 어떻게 치료하였을까? 이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그런데 국사나 왕사의 일대기를 서술한 승려비문 내용 중에서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주인공의 탄생과 출세, 사망과 장례는 매우 주요한 일로 비교적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고승 비문에는 이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앓았던 질병에 관한 이야기가 부수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례가 있다. 고려 승려비문에 나타난 고승들의 질병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조선시대에 비해 개인 질병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은 고려의 질병사와 의료사를 풍부하게 해 줄 수 있다.

비문의 주인공 대부분은 국사나 왕사였던 승려로서, 이른바 학식과 덕식이 높은 고승이라고 할 수 있다. 왕사나 국사는 고려시대에 장수한 집단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적어도 50대가 넘어야 왕사나 국사와 같은 직책을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이들 고승 집단에서는 40대에 사망한 사례가 있을 수 없으며, 모두 50대 이상 주로 60대나 70대 심지어 90대까지 생존한 경우도 있다.

오늘날 승려를 많이 치료하였던 임상의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승려에게는 자주 나타나는 특정 질환들이 있으며 일반인과 달리 동일한 질병임에도 그 성질이 독특하다고 한다. 즉 승려들에게만 나타나는 질병

이 가지는 특성이 있으며, 그 치료를 위해서는 일반인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1)</sup> 이미 조선시대 의학서 『동의보감』에서도 1575년 출간된 명나라 의학서 『의학입문』을 인용하여 얼굴이 시린 증상을 호소하는 늙은 여승의 질병이 찬 성질을 가진 차를 많이 마시는 승려의 생활로 인한 질병이라는 점을 소개하고 있다.<sup>12)</sup> 사찰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거주하며 승려라는 직업을 가지고 오랫동안 생활하였던 고승대덕의 일대기인 승려비문에 나타난 질병 속에는 승려라는 직업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려시대 승려의 비문을 중심으로 주인공 승려의 질병과 치료를 통해 고려시대 불교 의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울러 고려시대 사찰 생활상의 새로운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승려의 질병

승려는 일반인과는 다른 특별한 생활환경과 이들과의 독특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일반인과는 다른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病質 또한 일반인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sup>13)</sup>

예컨대 승려에게는 만성 고질병이 많은데, 첫째 주로 먹는 음식이 차고 거친 것이 많아서 장기적으로 소화기에 부담을 주고 영양도 고르지 않기 때문에 위장 장애나 장 질환 등 내상질환이 많다. 둘째, 삼림에 둘러싸인 산중 사찰에 주거하는 승려는 습하고 일교차가 심한 환경 때문에 감기와 같은 외감성 질환이 많다. 셋째, 수행 중 느끼는 자기

8) 尹彦隨 撰, 『雲門寺圓應國師碑』; 이지관 역, 『교감역주 역대 고승비문(고려편 3)], 276쪽.

9) 『고려사』 권106, 열전19 조간. 조간은 1279년(충렬왕 5) 문과에 급제한 뒤 찬성사 등을 역임하고 1302년에 사망하였다.

10) 『고려사』 권106, 열전19 홍응.

11) 윤경일, 「승려의 질병 특성과 그 치료에 관한 高論」, 『대한한약』 2, 대한한약 협회, 1999, 31~51쪽.

12) 『東醫寶鑑』 권3, 외형편 면부, 10 面寒, “一老尼患面寒不敢當風 行諸治不效 此人年高素食茶果 陽明之氣不能上榮 故也 先以附子理中湯 溫其中氣 次用升麻附子湯 治之而愈 入門”.

13) 윤경일, 앞의 논문, 1998, 37~41쪽.

갈등이나 폐쇄된 공간내의 조직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젊은 스님의 경우 성욕을 지나치게 억제함으로 인해 심신의 파장이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한의학에서는 일찍부터 ‘과부사나지병’이라 하여 홀로 된 독신녀나 비구니에게서만 볼 수 있는 부인과 질환의 존재가 알려졌는데, 비구의 경우도 이로 인한 질환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넷째, 운동량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너무 무리해서 운동기결질환이 오는 경우가 많다. 한의학에서는 과부나 승려처럼 독신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일반인과 달리 獨處(독처)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파악하였다.<sup>14)</sup> 물론 이러한 지적은 오늘날의 승려에 해당하지만, 고려시대 승려도 이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고려 승려비문에 남아있는 질병은 주로 주인공 왕사나 국사의 죽음을 초래한 원인으로서 기술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고승은 그 누구보다도 긴 평균 수명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오랜 기간 사찰 내에서의 규칙적인 생활을 하였으며, 높은 법력으로 일반인과는 달리 스트레스를 잘 다스릴 줄 알았을 것이다. 또한 평소 소식하면서 이른바 웰빙 식단인 사찰음식을 통해 바람직한 섭생을 하였을 것이며, 사찰 내에 유전하는 불교 의학으로 평소의 건강을 관리하였기 때문이라고 파악된다.

고려시대 장수집단인 고승대덕들도 질병을 앓았다. 고려 승려비문 자료에 나타난 승려의 질병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발배

발배는 고려시대 질병 가운데 사망 원인으로 많이 언급된 것 가운데 하나이다. 고려시대 승려 가운데 발배로 사망한 사례로 정인왕사 志謙(?~1213)을 들 수 있으니, 다음의 자료가 그것이다.

- A. (신종) 임금이 廣明寺가 궁궐에 가까우므로 거기에 머물기를 청하고 따라서 居頓寺를 本寺로 삼아 香火의 경비를 충당하게 하였다. 가을 8월에 임금이 편찮고 국사도 背疽가 났다. 문인들이 기도하기를 청하자, 국사는 노기를 띠며 말하기를, “상의 몸이 편찮으신 중에 내가 다 행히 병이 났으므로 상의 병을 내 몸에 옮기려 하는 마음 간절한데, 너희는 기도하려 하는가?” 하였다. 임금이 승하하고 지금의 임금이 왕위를 계승하자 선왕의 스승이므로 다시 사례를 높이니, 恩遇가 더욱 성대하였다.<sup>15)</sup>

정인왕사 지검은 사후 정각국사로 봉해졌다. 그는 신종대 왕사가 되었는데, 마침 왕이 병이 났을 때 자신도 背疽, 즉 등에 종기가 나는 발배로 고통 받고 있었다. 수하의 승려들은 기도로 치료하고자 하였는데, 지검은 왕의 질병이 자신에게 옮기는 상징으로 자신의 발배를 규정하고자 하였다.

13세기 중엽 고려 대장도감에서 간행한 『향약구급방』에서도 다루었던 발배는 등에 나는 종기로서 목욕을 자주하지 못하던 전근대 사회에서는 흔한 질병이라고 알려져 왔다.<sup>16)</sup> 고려 현종대 송나라에서 수입한 『태평성혜방』에 따르면, 발배는 견갑골 사이의 등에 벌겍게 부으면서 좁쌀알만 한 종기가 생겨 열이 나며 아픈 것인데, 초기에 치료하지 못하면 수일 만에 죽는다고 하였다.<sup>17)</sup>

15) 『東國李相國集』 권35, 『封靜覺國師碑銘』, “上以廣明寺近帝闕請住焉 申以居頓寺爲本寺 充香火之費 秋八月上不豫 師亦發背疽 門人等請禱 師厲色曰 上體不安而予 幸有疾 切欲移之身 汝將禱耶 上升遐 今上嗣位 以寧考師 復崇師禮 恩遇益綽”.

16) 이현숙·권복규, 「고려시대 질병관과 전염병관 : 향약구급방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88, 2007, 598쪽.

17) 『太平聖惠方』 권62, 發背論, “其候多於背兩脾間 初起如粟米大 或痛或癢 四畔作赤色 日漸增長 若不早療 經數日遂至不救”. 원문은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http://ctext.org>)의 것을 사용하였다. 15세기 조선에서 편찬한 『향약집성방』에서도 발배는 중요하게 다루었다. 『鄉藥集成方』 권 41, 發背에서는 『太平聖惠方』의 발배론을 인용하여 논하기를, “대개 발배는 삼초가 응체되고 6부가 고르지 못해서 생기는데, 흔히 6부의 유형들에 생긴다.”라고 하여, 복석약의 폐

14) 윤경일, 앞의 논문, 1998, 32쪽.

신종(1144~1204)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질병 역시 발배였다.<sup>18)</sup> 최충헌은 명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同母弟인 신종을 옹립하였는데, 신종은 재위 7년만인 60세에 발배로 생을 마감하였다.

그런데 부자지간의 왕권다툼으로 자신이 세운 왕국을 스스로 무너뜨렸던 후백제의 견훤과 인종대 국주로 유배되었던 척준경(?~1144)도 발배로 사망하였다.<sup>19)</sup> 견훤이나 척준경, 그리고 임연의 경우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서 이러한 질병에 걸려 곧 사망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견훤은 아들 신검의 배신으로 자신의 후백제를 스스로 망하도록 도왔으며, 후백제 멸망 후 곧 발배로 사망하였다고 한다. 척준경 역시 정권의 실세에서 밀려나 고향에서 한동안 유배생활 중 인종의 사면령을 받았지만 곧바로 발배로 사망하였다.<sup>20)</sup> 또한 최씨 무신정권을 이어 고종을 압박하던 임연은 마침내 실각하게 되자 근심과 번민으로 등에 난 癰疽, 즉 발배로 죽었다.<sup>21)</sup>

이처럼 발배는 악인의 최후를 서술하는 역사적인 질병으로 등장하였다. 당시의 기록에는 발배의 원인을 극도의 스트레스, 즉 憂鬱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런데 신종과 지겸의 발배는 전염성 질환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국왕과 동일한 질병에 걸린 것을 기뻐한 보람도 없이 발배로 인해 신종은 죽었지만, 지겸은 회복되었다.

## 2. 풍병과 이질

고승의 대덕을 찬양하기 위해 찬술한 비명에서 평소 앓고 있었던 질병을 솔직하게 밝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노년에 중풍으로 고통을 받다가 노환으로 사망하였던 원종국사 智宗(930~1018)의 사례에서 고승들 역시 중풍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을 알 수 있으니, 다음의 자료가 그것이다.

B-① (국사는) 開泰 2년에서 3년을 지난 후, 법호를 普化라고 첨가하였으니, 모두가 이른바 大德을 가진 이라야 만드신 그런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다. 뒤에 갑자기 風癘에 걸려 기운과 엄혀 떠나지 않았지만, 완전 무결하게 參請(예배하고 법을 물음)하면서 오히려 남은 부류의 말씀을 전해주었다.<sup>22)</sup>

B-② 임신년(1392) 가을 7월에 우리 주상께서 혁명하여 왕업을 열자 선사께서는 즉시 표문을 올려 축하하고, 얼마 뒤에 老病으로 그 직위와 질에서 물러날 것을 청하여 牒文과 함께 印을 보낸 다음 淸風사로 행장을 옮겼다.……얼마 안되어 痢疾에 걸려 10여 일 동안 낫지 않았다. 용변이 잦았으나 남에게 부축을 받지 않았으며, 피곤하여도 편히 눕지 않고 언제나 깨끗이 앉아 있었다. 9월 18일 병신일에 遺書를 쓰게 하면서 문인에게 이르기를 ‘내가 갈 때가 오는 저녁이라, 고을의 관원을 불러 印을 봉해야 하겠다.’고 하더니, 저녁때가 되자 앉아서 말하기를 ‘지금 죽을 때가 되었다. 나는 운명하겠노라.’ 하고, 곧 偶를 배운 다음 묵묵히 示寂하였다. 8일 동안 床에 앉았으며 얼굴이 평시와 같았다.<sup>23)</sup>

해로 생긴다는 논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향약집성방』 제3권, 일월서가 북각본, 1993, 79쪽.

18) 『고려사절요』 권14, 명종 6년 12월, “庚申 王發背疽”.

19) 『삼국사기』 권50, 열전 10, 견훤, “甄萱憂鬱發疽 數日卒於黃山佛舍”; 『고려사절요』 권10, 인종 22년 봄 2월, “詔曰 拓俊京雖失爲臣之節 亦有衛社之功 可授檢校戶部尙書 數旬疽發背 死于谷州”.

20) 『고려사』 권127, 열전 40 반역 1, 척준경.

21) 『고려사절요』 권15, 원종 11년 2월 병술일, “林衍 遣夜別抄 巡行諸道州郡 督民入居諸島 是日衍 憂鬱疽發背而死”.

22) 崔冲 撰, “圓空國師勝妙塔碑”, “越三年 又加號曰普化 皆所謂有大德者 必得其名矣 後以救遺風癘 綿留氣序 十全參請 尙傳遺類之言”. 본고에서 사용한 금석문의 원문과 번역문은 모두 한국금석문종합영상시스템(<http://gsm.nripc.go.kr>)의 것을 주로 사용하였고, 경우에 따라 허홍식, 『한국금석전문』 중권과 하권, 아세아문화사, 1984의 것과 1918년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한국금석총람』 등을 참조하였다.

23) 權近 撰, “普覺國師碑銘”, “壬申秋七月 我主上革命啓統 師即表賀 俄以老病乞權其位與寺 修殘送印 遂移錫于靑龍……未幾痢作 旬日弥留 雖數起便 不令人扶困不尸臥 必以支脇 至九月十有八日丙申 命作遺書 又謂門人曰 吾行在今晚 可

자료 B-①은 현종대의 왕사 지종이 노년에 증풍으로 고생하였던 사실을 전하고 있다. 그는 현종 5년(1014) 이후 풍아병에 걸렸다. 風痺란 고질이 된 풍병이라는 뜻으로, 증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왕사로 임명된 바로 다음 해였는데,<sup>24)</sup> 증풍에 걸린 지종은 여전히 모든 예배 의식에 참여하여 제자들에게 선대 조사들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다. 4년간 투병한 지종은 89세(법랍 72세)에 사망하였으므로, 천수를 누렸다고 할 수 있다.

자료 B-②는 이질로 사망한 혼수(1320~1392)의 사례이다. 혼수는 우왕 9년 국사에 임명되었다가, 창왕 즉위년과 공양왕 원년에 다시 국사로 책봉되었다.<sup>25)</sup> 고려가 망하고 이성계가 왕이 되자 축하하는 글을 올린 뒤, 국사의 직위를 그만두고 청룡사로 간 것이었다.<sup>26)</sup> 혼수는 72세의 나이에 이질에 걸렸는데, 시기적으로 보건대 음력 8월말이나 9월 초 무렵으로 보인다. 즉 그는 이성계의 즉위를 본 뒤 청룡사로 가자마자 설사병으로 사망한 것이다. 비문의 찬자는 혼수의 설사병이 심각하였지만, 몸가짐이 흐트러지지 않을 만큼 혼수의 법력이 뛰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이질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향약구급방』에서는 이질을 몸이 차고 습한 冷痢과 피가 섞인 설사를 하는 熱痢, 기가 허하거나 체해서 하는 거품 같은 설사인 氣痢로 분류하였다. 단순 설사와 세균성 이질(shigellosis)을 달리 파악하고 있었다. 혼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질은 세균성 이질 즉 열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특정한 질병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비문에서는 주인공 고승대덕을 미화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이는 아마도 당시에는 질병에 걸리는 것을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sup>27)</sup> 이들 노승들에게도 지병이 있는 경우도 있었을 터이지만, 굳이 밝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을 것이다.

### 3. 운동기계 질환과 기타

자료에 나타나는 발배와 이질과 같은 구체적인 질병 이외에도 오랜 기간 동안 앉아서 참선을 해야 하는 승려생활로 인해 승려들은 운동기계 질환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과격한 운동이나 필요이상으로 관절을 혹사시켰을 때 변형성 관절증이 나타나는데, 현재도 승려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병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한다.<sup>28)</sup> 다음의 자료를 보건대, 고려시대에도 몸을 혹사하는 수련 생활로 인해 관절염이나 디스크 등으로 고통 받는 승려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C-① (현각선사는) 피로를 잊고 철야 정진하여 잠을 자지 아니하였다.<sup>29)</sup>

C-② 어머니를 하직하고 떠날 때 무렵에 등근 해가 선사의 얼굴을 비치는 꿈을 꾸었다. 이미 경사로운 징조임을 깨닫고 곧 금강산으로 들어갔으니, 지정 8년(충목왕 4, 1348)이었다. (결락) 마음으로 (다잡고) 잠도 자지 않으며 잠시도 몸을 눕히지 않고 공부하였다. 매일 정진한지 2년 만에, 그 어머니가 간절히 기다린다는 말을 듣고 즉시 돌아와 뵈고 京山에 우거하면서 감히 멀리 돌아다니지 않았다.<sup>30)</sup>

諸州官封印 至晚坐曰 如今臘除已到 吾當逝矣 卽設偈 儼然示寂 床坐八日 貌若平時”. 원문과 해석은 한국고전번역원(<http://db.itkc.or.kr>)에 있는 『陽村先生文集』 권37, 碑銘類에 있는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의 것을 사용하였다.

24) 박윤진, 『고려시대 왕사-국사연구』, 경인문화사, 2006, 69쪽.

25) 『고려사』 권135, 열전48 신우3, 계해 9년(1383); 『고려사』 권137, 열전50 신우5, 신강.

26) 국가의 대표적인 고승으로서 대우한다는 의미를 가진 국사는 고려 후기 들어 그 기능이 왕사와 비슷해지면서, 국왕이 바뀔 때마다 제신임의 절차를 걸쳤다고 한다. 박윤진, 앞의 책, 2006, 218~219쪽.

27) 이현숙·권복규, 앞의 논문, 2007, 참조.

28) 윤경일, 앞의 논문, 1998, 35~41쪽.

29) 張信元 撰, 『鶯谷寺玄覺禪師塔碑』, “(결락)疲通宵弗寐”.

30) 權近 撰, 『普覺國師定慧塔碑』, “辭母將行 夢見日輪 直照師面 既覺欣慶 徑往金剛山 卽八年(결락) 心不寐 脇不暫 衝功契 日進既二稔 聞其母 戀望不置 卽來觀省 寓止京山 不敢遠遊”.

위 사례와 같이 잠도 자지 않고 무리하게 용맹 정진하는 경우, 제대로 영양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질병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979년에 건립된 C-①현각선사비에 따르면, 그는 며칠 동안 잠도 자지 않는 극단적인 수행을 하였다. 이때 선사의 나이는 29세였다. 또한 C-②보각국사 혼수는 30이 가까운 나이에 2년 동안 금강산에 들어가 거의 몸을 눕히지 않는 정진을 하였다. 철야 정진하는 승려 가운데 심신의 조화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디스크나 관절 질환 등을 고질병으로 가지고 있는 사례도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sup>31)</sup>

그런데 승려 비문에는 며칠 만에 사망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니 다음의 자료가 그것이다.

- D. 병진년 4월에 크게 落成法會를 열어 회향하였다. 이때 臺評이 儒生の 입장에서 불교의 왕성함을 시기하여 말하기를 “회암사는 서울과 매우 가까운 거리이므로 청신사와 청신녀들의 오고 감이 계속 이어져 밤낮으로 왕래가 끊이지 않아 혹은 지나치게 맹신하여 생업을 폐하는 지경에 이르니 금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 하였다. 이에 교지를 내려 나옹스님을 서울과 멀고 벽지인 塋原寺로 이주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출발을 재촉하여 가던 도중에 스님이 마침 병이 났다. 출발 당시 가마가 靉藥門을 통과할 때 모든 대중이 무슨 이유인지 의심하면서 실성통곡하므로, 스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말하기를 “노력하고 또 거듭 노력하여 나로 인하여 슬픔에 잠겨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나는 가다가 마땅히 驪興에서 그칠 뿐이다”라고 하였다. 한강에 이르러 護送官인 卓詹에게 이르기를 “내 병세가 심하니 뱃길로 가자” 하여 배로 바꾸어 타고 7일간 漚流하여 여흥에 이르렀다. 이때 또 탁첨에게 부탁하기를 “며칠만 머물러 병을 조리하고 떠나자”고 하니 탁첨이 그 뜻을 받아들였다. 선록사에서 머물고 있는데 5월 15일에 탁첨이 또 출발하기를 독촉하므로 스님께서 이르기를 “그것은 어렵지 않다. 나는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라 하고, 이 날 진시에 조용히

31) 오늘날 禪武道 혹은 佛武道라고 하여 불가에서 유래하는 심신단련법도 운동 기계질환을 예방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入寂하였다.<sup>32)</sup>

위 자료는 선각왕사 惠勤(1320~1376), 즉 나옹화상이 갑자기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한 부분이다. 공민왕 20년(1371) 혜근은 왕사에 임명되었는데, 우왕 2년 회암사를 낙성한 뒤 참소를 당하였다. 우왕은 혜근을 벽지에 있는 형원사로 이거하도록 하였는데, 호송관의 재촉을 받으며 길을 가던 도중 병이 나서 선록사에서 57세로 사망하였다. 발병한 지 보름이 채 안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급사하였던 원인이 무엇인지 자료 부족으로 더 이상 논의하기 어렵다. 여행 도중 사망한 것으로 보아 감염성 질병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 4. 죽음에 이르는 질병

비문의 주인공인 고승들은 노년에도 극진한 대접을 받았는데, 음식도 사찰 내에서 최상의 것만을 섭취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노환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70세 이상으로 사망한 경우는 대부분 원인이 노환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70세 이상 장수하면서 노환으로 죽음에 이르는 모습은 어떠하였을까?

이들 고승들이 입적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비슷한 서술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다음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E-① 수창 2년 12월 18일에 이르러 (혜덕) 왕사께서 금산사의 奉天院에서 깊은 밤에 불경을 보시다가 질병이 있었다. 숙중계 알렸더니 곧 어의

32) 李橋 撰, 「檜巖寺址禪覺王師碑」, 「丙辰四月 大設落成之會 臺評以謂檜岳密邇 京邑士女往還晝夜 絡繹或至廢業禁之 便於是有旨移住塋原寺 逼迫上道 師適疾作 興出三門 至池邊自導輿者 從濕盤門出 大眾咸疑 失聲號哭 師顧曰 努力努力 無以余故中輟也 吾行當止於驪興耳 至漢江 謂護送官卓詹曰 吾疾劇 乞舟行 漚流七日 方至驪興 又謂卓曰 欲少留俟病間即行 卓勉從之 萬神勸寺 五月十五日 卓又督行急 師曰是不難 吾當逝矣 是日辰時 寂然而逝」.

를 보내어 진찰하였으나,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계속 中使를 보내고 尙乘局의 마차를 보내어 그 절에 시납하였다.(결락) 內侍少卿 池澤厚가 깃대를 받들어 전하고, “이제 대사를 봉하여 왕사로 삼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사는 頓首하고 말하기를 “덕이 박하고 수행도 용렬한데, 어찌 聖獎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하였다. 밤이 깊어지자 楊枝를 씹어 양치질한 다음, 미륵여래의 명호를 읊하고 四弘誓願에 이르러 문하 제자들과 더불어 부축하되, 당당하여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 한 밤중에 이르러 다시 양치를 씹은 다음, 조금 있다가 입적하였다.”<sup>33)</sup>

E-② 임진년 8월 초순에 (원감국사 충지) 스님께서 미질을 보였고, 계사년 정월 7일에 병세가 더욱 위중하였다. 그러하여 그 달 10일 새벽 일찍 일어나 삭발하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문인들에게 이르기를 “태어남이 있으면 또한 죽음이 있는 것은 인간 세상에 피할 수 없는 일이니, 나는 곧 떠날 것이다. 너희들은 잘 있으라” 하였다. 문인이 임종계를 청하니, 스님께서 임종계를 설하였다.<sup>34)</sup>

E-③ 겨울 12월 17일 미질을 느끼게 되었다. 23일에 문인을 불러 이르기를 “내일 유시에 나는 떠날 것이니 국사의 인장과 口占으로 남긴 辭世狀 여러 통을 봉하여 知郡에게 청하라”고 당부하였다. 때가 다가옴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단정히 앉아 임종계 四句를 말씀하고,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조용히 입적하였다.<sup>35)</sup>

E-④ 至元 31년 1월 19일 스님께서 가벼운 병을 보였다. 舍下에 있는 明德이라는 스님이 국존에게 병세를 물으니, 국존께서 이르시기를 “다만 음식의 소화가 잘 안될 뿐이다”라 하였다. 또 대중을 조용히 상대하시고 침착하게 談笑를 나누셨다. 24일 寅時 말에 侍者를 불러 유서와 직

인을 함께 봉하게 하고, 행리별감인 崔洪巨에게 부탁하여 임금님께 전하도록 하고는 단정히 앉아 『대방광불화엄경』 十地品을 擧揚한 다음, 조금 있다가 조용히 입적하였다.<sup>36)</sup>

자료 E-①은 숙종 대에 전라도 금산사에서 주로 활약하였던 혜덕왕사 韶顯(1038~1097)의 마지막 모습이다. 그는 죽기 전에 유달리 이를 자주 닦고 있다. 아마도 비문의 자료 역할을 하였을 행장에서 마지막 모습을 이처럼 그렸기 때문에 비문 찬자가 이를 특별히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에서 얇은 버드나무 가지로 이빨을 문질러 닦은 데서 비롯된 양치질은 불교의 계율서에 부처님의 말씀으로 자리 잡았다.<sup>37)</sup> 고려시대 사찰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승려의 치아 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양치질이 죽기 전에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중요한 과정이 되었음을 자료 E-①을 통해 알 수 있다.

자료 E-②와 ③ 역시 고승의 임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원감국사 충지(1227~1293)는 가벼운 질병이 생긴지 5개월 뒤 사망하였다. 그는 사망 직전 목욕하고 머리를 밀었으며, 임종을 앞두고 계승까지 내렸다는 것을 자료 E-②에서 강조하고 있다. 고려 말의 원증국사 普愚(1301~1382)는 가벼운 질병에도 자신이 죽을 것을 미리 예지하였다. 국사의 인장과 국왕에게 보내는 여러 통의 서찰을 미리 구두로 일러 쓰게 한 뒤, 해당 지방관아에 보내라고 유언을 하였다. 마지막 목욕을 한 후 임종계를 제자들에게 알린 뒤 입적하고 하여 보우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자료 E-③에서 상세하게 서술하고

33) 李穡撰, 『瞻慧慈德王師眞應之塔碑銘』, “泊二年 十二月 十八日 師於寺之奉天院 深夜看經次 有斯疾 既以聞 卽遣御醫 診視之 未回 續差中使 押送尙乘鞍馬 施納其寺 以□□□□□□□內侍少卿 池澤厚 奉傳聖旨 今欲封師爲王師 師頓首言 德薄行庸 豈堪聖獎 夜將深 嚼楊枝 漱訖 念彌勒如來名號 泊四弘願歎 與門弟等囑累 蕩蕩然無憂色 中夜 更嚼楊枝 俄而遷化”.

34) 金暉撰, 『圓鑑國師碑銘』, “至壬辰八月初旬 師示微疾 癸巳正月初七日 疾漸重 十日晨起淨髮更衣 謂內人曰 有生有死 人世之事 吾當行矣 汝等好住 門人請偈句 師乃偈曰……”.

35) 李穡撰, 『太古寺圓證國師塔碑』, “冬十二月十七日 感微疾 二十三日 召門人曰 明日酉時 吾當去矣 可請知郡封印口占辭世狀數通 時至沐浴更衣 端坐說四句偈聲盡而逝”.

36) 金暉撰, 『桐華寺瞻諡弘眞國尊碑銘』, “至元三十一年正月十九日 師示微恙 會下明德問疾 師云但飲食不調 且對衆從容 談笑自若 至二十四日 寅末 喚侍者 修遣書封印 付囑行李別監崔洪巨 振身端坐 擧揚華嚴經十地品 俄頃泊然而逝”.

37) 『五分律』 권26, (622 : 176), “有諸比丘. 不嚼楊枝 口臭食不消 有諸比丘 與上座共唾 惡其口臭 諸比丘以是白佛. 佛言: ‘應嚼楊枝 嚼楊枝有五功德. 消食 除冷熱噉唾 善能別味 口不臭. 眼明’ 可知嚼齒木 主要在於除口中臭氣 兼爲消化等”; 佛光山電子大藏經(<http://etext.fgs.org.tw/>)에서 인용.

있다.

자료 E-④는 흥진국존 惠永(1228~1294)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묘사한 부분이다. 혜영은 67세가 되던 해에 소화가 잘 안되는 가벼운 질환을 보였는데, 닷새 만에 사망하였다. 그는 죽기 전에 국왕에게 남기는 유서와 국사의 직인을 봉하여 행리별감에게 준 뒤 앉아서 사망하였다.

주인공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문의 특성상 고승들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를 미리 예지하였으며, 죽기 전에 모두 계승을 남겼다는 것을 위 자료에서는 모두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고려시대 승려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규율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관 『선원청규』에 따르면, 고승의 병세가 심각해지면 임종을 앞둔 승려가 남기는 유언을 모두 빠짐없이 적어두고 해당 관청에 미리 알려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죽음을 맞이하면 가장 먼저 목욕과 이발을 시킨 뒤 가사를 입혀 관 안에 두도록 하고 있다.<sup>38)</sup> 위 자료에서 양치질이나 목욕을 강조한 것은 사망한 뒤에 하는 과정을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고 갈 수 있었던 고승들의 대덕을 찬양하기 위해 쓴 것으로 보인다.

F-① 기축년(1289) 6월 病이 일어났고, 7월 7일에 이르러 손수 大內에 율필 편지를 쓰고, 또 侍者를 시켜 편지를 써서 相國인 廉承益에게 보내어 長往을 알리도록 하고는, 모든 禪老들과 더불어 날이 저물도록 문답하였다. 이날 밤 1척이나 되는 큰 별이 方丈室 후원에 떨어지는 징후가 있었다. 다음 날 乙酉일 새벽 일찍이 일어나 목욕하고 단정히 앉아 大衆에 이르기를, 내가 오늘 떠나려 하는데, 혹시 重日이 아닌지? 하고 물었다. 시자가 대답하되 중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좋다 하고, 대중으로 하여금 法鼓를 치게 하고 스님께서는 善法堂 앞에 이르러 禪床에 걸터앉아 印寶를 봉함하여 掌選別監인 金成固에 명하여 다시 거듭 封畢하고, 天使가 오거든 老僧의 末後事를 알리라 하였다.……법상에서 내려와 方丈室로 돌아가서 조그마한 禪床에 앉아서 담소함이 평소

와 같았다. 잠시 후 손으로 金剛印을 맺고 조용히 입적하였다.<sup>39)</sup>

F-② 至理 2년 겨울 10월에 이르러 병이 들었다. 松林寺에 옮겨가서 遺書를 써서 봉인하여 시종에게 맡기고, 30일 뒤에 세수 목욕하고 설법으로 여러 제자들과 작별하였으니,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그리고는 방장으로 돌아와 결상에 의지하여 떠났다.<sup>40)</sup>

위 자료 F-①은 『삼국유사』를 찬술한 보각국사 일연의 임종과정이다. 선원청규의 법규에 따라 모든 일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죽음을 앞두고 국왕에게 이를 알리는 작별의 인사 편지를 쓴 뒤, 임종을 하였다. 그 뒤 중일이 아닌 것을 확인한 뒤 선상에 앉아 국사의 인장을 봉함하여 별감에게 맡긴 뒤 국왕에게 자신의 죽음에 관한 일을 알리도록 당부하였다. F-②는 1322년 보감국사 혼구가 입적할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일연과 혼구 모두 의자 위에 앉아서 결과부좌한 채로 죽었다. 이 역시 『선원청규』에 규정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일연의 사례에서 重日을 피하여 죽으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일이란 양과 양, 음과 음이 만나는 날로 불길한 날을 의미하는데, 일연은 중일인지 아닌지를 묻고 이를 피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중일을 피하려는 사례는 다음의 자료 의종대 광지선사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G. 무인년(1158) 7월에 갑자기 다리에 병이 났다. 8월 4일 병이 더욱 심해지자 머리를 깎고 목욕한 다음, 옷을 갈아입고 게를 지었다. 돌아가시려고 할 때 “오늘이 며칠인가”하고 물으니, 제자가 “辰日입니다.”라고

39) 閔漬撰, 『麟角寺普覺國師碑銘』(李智冠 校勘 修證 補完本에 근거한 번역 자료를 사용함; [http://gsm.nricp.go.kr/\\_third/user/viewer/viewer03.jsp](http://gsm.nricp.go.kr/_third/user/viewer/viewer03.jsp))

40) 李齊賢撰, 『堂源寺寶鑑國師碑銘』, 『東文選』 권118, “至至理二年 冬十月感疾 移錫于松林寺 修遺書封印付侍者 越三十日 盥浴說法別衆 其略曰(中略) 既乃還方丈 據床而逝”.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DB(<http://db.itkc.or.kr/dml>)에 있는 『동문선』의 원문과 번역문을 이용하였다. 본고에서 사용한 고려시대 문집 자료와 『동문선』은 모두 여기에서 인용하였다.

38) 자각 종석선사 원저, 최법혜 역주, 『고려관 선원청규 역주』,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1, 277~278쪽.



대답했다. 선사께서 말하기를, “진일과 巳日은 세속에서 꺼리는 날이니, 나도 마땅히 피하여야겠다.”라고 하였다. 12일이 되자 또 계를 지어 대중에게 보였다.<sup>41)</sup>

일연과 광지대신사 지인이 죽는 날을 가렸다는 것을 굳이 비문에 기록한 이유는 죽는 날도 조정할 수 있는 고승의 능력을 찬양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요컨대 고려시대 70세 이상의 고승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질병은 미질이라고 표현되었던 노환이 주된 요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고령으로 인해 신체가 노쇠하여진 상태에서 감기나 기타 사소한 질병에 감염되어 사망하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 III. 승려에 대한 치료

승려에 대한 치료는 그 신분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졌다. 가장 높은 지위를 점유한 국사와 왕사에 대한 치료와 나머지 승려에 대해 제공된 치료는 달랐으니,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1. 왕사와 국사

먼저 왕사나 국사와 같은 고승의 경우, 질병에 걸리면 국가에서 어의가 파견되어 치료하였다. 이들 고승은 고려 전기부터 어의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다음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H. (경종) 대왕이 이를 듣고 尙醫 供奉侍郎인 直文에게 명하기를, “특별히 유념하여 仙藥을 가지고 가서 곁에 있으면서 아침저녁으로 간호하라.”

41) 林宗庇 撰, 「廣智大禪師之印墓誌銘」, “戊寅秋七月 遽嬰足疾 八月四日疾病 剌沐更衣 說偈將欲化去 問是何日 門人報辰日 師曰辰巳爲俗所忌 吾當避之 至十二日 又作偈示衆”.

고 하였다. 대사는 사랑에게 이르기를, “노승의 병에는 聖藥이 없으니, 청컨대 사랑은 곧 대궐로 돌아가서 龍塢를 잘 侍護할 것인지 어찌 노승을 위하여 오랫동안 머물러 있겠는가.” 하였으니, 가히 유마거사의 병에는 桐君의 약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sup>42)</sup>

위 자료 H는 법인국사 탄문의 질병 치료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국사가 질병에 걸리자 경종이 어의를 파견하고 약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탄문은 이를 거절하고 975년 3월 29일에 76세(승랍 61세)로 사망하였다. 그는 열반에 들기 전 목욕을 한 뒤 大衆을 모아 놓고 遺訓을 내렸다.

경종이 어의를 파견하려고 하였던 것은 왕사나 국사에게 고려의 고위 품관자에게 제공되었던 의료 혜택이 동일하게 작용되었던 것을 보여준다. 고려시대에는 문관 5품이상, 무관 4품이상이 질병에 걸리면 어의가 파견되어 약이 제공되는 일종의 고급관료를 위한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었는데,<sup>43)</sup> 여기에는 국사와 왕사도 포함되었던 것이다.

I. (원공국사 지종은) 홀연히 風病에 걸려……만승천자인 입금께서도 오랫동안 스님의 병에 대해 걱정하여 지주 약을 보냈다.<sup>44)</sup>

위 자료에서 85세에 중풍에 걸린 원공국사 지종에게 현종이 지속적으로 약을 보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국사였으므로 어의의 치료도 받았을 것이다.

83세(승랍 74세)로 사망한 혜소국사 鼎賢(972~1054)의 경우, 나이가 들고 몸이 점점 쇠약하자 개경의 절을 떠나 지방에 있는 조용한 산중 사찰인 칠장사에서 마지막을 준비하였다.<sup>45)</sup> 지광국사 海鱗(984~1070)

42) 金廷彦 撰, 「普願寺法印國師碑銘」, “大王命尙醫供奉侍郎直文 別賣仙藥 晨夕侍護 大師曰 老僧之病 更無救藥 請侍郎旋歸家闈 好侍龍塢 何爲老僧久滯山寺 可謂維摩之疾 不假桐君之藥”.

43) 이원숙, 「고려시대 관료제하의 의료와 민간의료」 『동방학지』 139, 2007 참조.

44) 崔冲 撰, 「居頓寺圓空國師勝妙塔碑」, “以救遺風病……萬乘疚懷 類致藥瘍之施”.

의 경우도 개경에서 머무르다 마지막 순간에는 법천사로 이거하여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에 따른 예도 간단하지 않았음을 다음의 자료가 잘 보여준다.

J. 함흥 3년(1067) 2월 모일에 국사께서 法泉寺에 돌아가 安住하고자 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暮齒의 탄식을 일으키며, 누차 임금께 사퇴할 것을 아뢰어 세 번이나 거듭 需頭의 주청을 올려 간절한 辭意가 확고함을 알렸다. 문종은 하는 수없이 윤허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해 9월 22일 왕이 현화사에 행행하여 闍院僧齋를 베풀고 겸하여 국사를 석별하는 寅饑筵도 마쳤다. 임금은 양반의 官率을 거느리고 국사에게 하직 인사를 한 다음, 좌승선 중서사인인 鄭惟產을 파견하여 手結을 찍은 조서와 茶, 藥, 瑠貨 등을 올렸는데, 그 이름과 수가 너무 많아 삭제하고 싶지 않는다. 국사는 이 달 27일 출발하여 본산인 법천사로 떠났다.<sup>45)</sup>

위 자료 J는 지광국사 海麟이 문종의 성대한 송별연을 받고 법천사로 이거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그는 개경을 떠난 지 3년 만에 87세(승답 72세)로 사망하였으므로, 장수한 편에 속한다. 국사였던 해린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졌는데, 차와 약과 보화 등이 지급되었다. 왕사와 국사의 질병 치료에 어의가 파견되고 御藥이 하사되는 제도는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니, 다음의 자료가 이를 잘 보여준다.

K-① 국사는 비록 만리 밖에 있었지만, 임금께서 항상 공경하는 마음이 (결렬) 특히 자주 위로와 문안을 더하였다. 겸하여 차와 쥘, 그리고 약제와 기타 필요한 물건을 보내지 않는 해가 없었으니, 그 웅성한 대우

는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다. 산문의 웅성함이 유사 이래 처음이었다.<sup>47)</sup>

K-② (황통)4년 갑자 10월 21일에 병이 나자 친히 진맥하고 侍醫에게 이르기를, “三部의 맥이 끊어졌으니, 돌아갈 때가 다가왔다”고 했다. 의사도 역시 그렇다고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국사께서는 세수와 양치질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가부좌로 단정히 앉아 향을 사르고 축원한 후 제자들에게 訓敎하였다.<sup>48)</sup>

K-③ 지금 문하시중 진양공 崔瑒도 스님의 도풍을 듣고 흠모하고 존경한 끝에 여러 번 개성으로 모시려 하였으나, 국사는 끝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천리나 되는 먼 거리에 있지만 서로의 의지가 합치되는 것이 마치 서로 대면한 것과 같았다. 그리하여 최공의 두 아들을 보내어 국사를 참례하고 모시도록 하였다. 국사께 (수도에 필요한) 常住物·資具 등을 힘을 모아 마련하여 주지 않는 것이 없었으며, 심지어 茶香·藥品·珍羞·名菓·道具·法服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계속 제공하였다.<sup>49)</sup>

위 자료 K-①과 ②는 모두 원응국사 학일(1052~1144)의 사례이다. 국사였던 학일에게 인종은 해마다 차와 향, 藥劑와 각종 물건 등을 보냈다. 자료 K-②에서 보듯이, 인종 22년(1144) 원응국사 학일이 질병에 걸리자 侍醫가 치료하였다. 이는 아마도 궁중에서 파견되었던 어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학일은 고승답게 자신이 스스로 진맥해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정도로 의학지식이 있었다. 그의 진단에 시의 역시 동의했다는 것은 그의 의학지식 역시 상당하였음을 보여준다.

자료 K-③ 수선사 진각국사 慧謙(1178~1234)의 사례로서, 최우가

45) 金顯 撰, 「七長寺慧炤國師碑」, “甲午年□□□□□□年 願漸逼齒截將臨 豈宜鍾漏之殘年 長居簞下 願以桑榆之德質 退臥山中……遣宰臣朴成傑 於郊亭龍送 仍差大夫少卿金陽·左街僧正道元等 送到漆長寺”.

46) 鄭惟產 撰, 「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碑」, “咸雍三年二月日 師欲歸安于法泉寺 幾興暮齒之嗟 纓陳身退 三上需頭之奏 確執懇辭 上優禮從之 以九月二十二日 駕幸玄化寺 特設闍院僧齋兼置寅饑之筵 訖率□班拜辭後 則遣左承宣中書舍人鄭惟產 押上茶藥瑠貨等 名數夥多 刪煩不載 取是月二十七日 發行指本山”.

47) 「雲門寺圓應國師碑」, “故師雖在萬里外 上意敬之□□□□□□ 特加勞問 兼送茶香·藥劑·段物 無歲無之 優渥不可殫記 山門之盛 近古已來 未之有也”.

48) 위와 같음. 「(皇統)四年甲子 十月二十一日 示疾 二十八日 師親診脈 謂侍醫曰 三部脈絕 化期至矣 豈亦以爲然 師盛歎更衣 跏趺端坐 焚香祝願畢 敎門弟子”.

49) 李奎報 撰, 「修禪社主眞覺國師碑銘」, “今門下侍中晉陽崔公 聆師風韻 傾渴不已 屢欲邀致京輦 師竟不至焉 然千里相契 宛如對面 復遣子宗侍 凡師之常住資具 莫不盡力 營辦至於茶香·藥劑·珍羞·名菓及道具·法服 常以時餉 連連不絕”.

자신의 두 아들을 문하제자로 보낸 뒤 각종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차와 향 그리고 약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무신집권기에는 국사나 왕사에게 약물을 하사하는 주체가 국왕에서 집정자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려 사회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5품 이상관과 고위 승관직에게 시의를 파견하고 약물을 지급하는 일은 최고 집정자만이 이 일을 주재할 수 있었다. 관료의사를 파견하여 질병을 치료해 주는 제도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통치 기제였던 것이다.

요컨대 국사나 왕사의 경우, 질병에 걸리면 국왕은 어의를 파견하여 치료해 주었다. 이는 국가가 치료해 주어야 할 대상에 국사와 왕사와 같은 고위직 승려들도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평소 사용할 수 있는 약물들이 제공되었다. 어의가 파견되기 전까지 고승대덕에 대한 치료는 사찰 자체 내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 2. 일반 승려

왕사와 국사처럼 고위 관직의 승려들에게는 어의들이 파견되어 치료가 이루어졌으며, 어약들이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일반 승려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치료하였을까? 선종 사원의 각종 규범과 규칙을 상세하게 규정한 청규에서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최초의 청규는 백장 懷海(720~814)선사에 의해 성립된 백장청규 이른바 古淸規이다.<sup>50)</sup> 이는 그동안 답습해오던 선원생활을 문서화하는

50) 선원청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정재일, 『각종종색의 『선원청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서은미, 『『禪苑淸規』를 통해 본 송대 禪宗寺院의 운영과 茶禮』, 『동양사학연구』 108, 2009; 서은미, 『『禪苑淸規』와 淸規의 일본 전래』, 『역사와 세계』 36, 2009. 서은미에 따르면 한국의 선원청규에 대한 연구 수준은 일본의 연구성과를 수용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즉 일본의 『譯註 禪院淸規』, 東京: 曹洞宗宗務廳, 1972를 고려판본에 맞추어 순서를 재조정한 것이 국내의 『역주 고려판 선원청규』라고 하였다. 서은미, 『『禪苑淸規』와 淸規의 일본 전래』, 29쪽.

과정에서 하나의 체계를 갖춘 것이라고 한다.<sup>51)</sup> 『선원청규』는 1103년 송나라의 慈覺宗頤 선사가 찬술한 것으로 현존하는 것 중 가장 오래된 청규이다. 고려와 일본에서까지 여러 차례 재각되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영향력이 높았다.<sup>52)</sup>

고려판 『선원청규』는 경남 남해에 있던 분사대장도감에서 고종 41년(1254)에 다시 조판한 것이라고 한다.<sup>53)</sup> 이로 미루어 보건대, 고려시대에 이미 『선원청규』는 선종 사찰의 중요한 규범으로 자리매김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sup>54)</sup> 위 자료와 관련 있어 보이는 규정으로 청규 제6의 將息參堂 조항을 들 수 있다.

L-① 주지인이 약을 먹을 때 만일 일상적인 병환이 아니어서 3일을 넘기면 마땅히 별채에서 휴식을 취하되 侍者로 하여금 수좌와 지사에게 아뢰게 한다. 만일 창고를 맡은 이나 頭首들에게 병이 있으면 모두 供頭<sup>55)</sup> 행자를 시켜 유나에게 아뢰게 하고 휴가를 청하여 延壽堂【어떤 곳에서는 省行堂이라고 한다】으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병환이 경미하여 업무를 할 수 있으면 본채에서 휴식을 취한다】 병이 지속되면 곧 주지인에게 아뢰어 따로 (업무) 교대를 청한다.…… 무리 중의 형체가 병이 있는 것을 깨달으면 스스로 가거나 혹은 사람을 보내어 堂司에게 보고하고 휴가를 청하여 쉬도록 한다. 그리고 寮主에게 보고한 이후 연수당에 들어간다.<sup>56)</sup>

51) 서은미, 『『禪苑淸規』와 淸規의 일본 전래』, 30쪽.

52) 서은미, 위의 논문, 31쪽.

53) 자각 종색선사 원저, 최법해 역주, 『고려판 선원청규 역주』,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1, 14쪽.

54) 고려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의 『戒初心學人文』에서 『선원청규』가 지켜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최법해 역주, 위의 책, 31쪽. 그러나 남아있는 고려 고승비문 자료로 보건대, 이보다 훨씬 이른 시기부터 청규는 규범으로 작용하였다고 파악된다.

55) 아침에 죽을 먹고, 낮에 밥 먹을 때에 밥·국·차·과일 등을 진지하는 소임을 맡는다. 불교사전(<http://buddha.dongguk.ac.kr>), 供過行者에서 인용.

56) 최법해 역주, 앞의 책, 269쪽의 번역을 참조하였음.

L-② 대저 병이든 승려가 있으면 鄉人과 道舊(오래도록 함께 수행한 벗)는 병자의 평상 앞에 마주하여 향축과 불상을 배열하고 염송하며 찬불하기를, “몸 맑으면 가을 달 비추듯, 간곡히 기도하면 福田을 낳습니다. 오로지 佛菩提만이 있으니 이곳이 참 귀의처입니다. 오늘 아침 이에 병이 있는 비구 謀를 위하여 多生の 冤對를 풀게 하고 누굽의 허물을 참회하나이다. 특히 우러러 청중에 몸 던져 聖號를 칭송하여 깊은 재앙을 물리치고자 하나이다. 우러러 존중의 힘 빌어 숲하나이다” 하며 청정법신이신 毘盧佛을 열 번 부른다. 운운……<sup>57)</sup>

L-③ 만약 병이 중하면 (이를) 위해 아미타불을 열 번 외운다. 외을 때 먼저 말하기를, “아미타불은 眞金색이며, 相好가 단엄하되 等倫(나이나 신분이 같은 사람)이 없다.……” 염불할 때 대중은 청정한 마음으로 잡념에 연연하지 말라.<sup>58)</sup>

L-④ 만약 僧人의 병세가 차츰 어려워지면 (연수당의) 당주는 維那 監院 首座 藏主 書記 知客과 計會하여, 함께 모두 (병이 난 승려의) 유언을 받아쓰고 관청에서 지급한 문서와 의물을 거두어 당사에서 보관하도록 한다. 수좌는 封押하고 아울러 자물쇠는 收掌하며, 지사는 관에 신고한다. 만약 병세가 더하면 곧 다시 위중함을 신고한다. 만약 이미 遷化하면 또한 관에 신고하되 殯送을 청한다.<sup>59)</sup>

위 자료 L-①에 따르면, 사찰의 우두머리인 주지가 병에 걸려 사흘 이상 앓을 경우, 정식으로 병가를 내어 별채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侍子를 보내 수좌와 知事에게 알려 병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 아래 직책의 경우, 규율을 담당하는 維那에게 보고한 뒤 연수당에서 치료받도록 하였다. 병환이 지속될 경우, 주지에게 말하여 자신이 담당한 일을 다른 이가 맡도록 하였다. 일반 승려의 경우, 자신이 속한 당사에 말하여 휴가를 받아 쉬거나 기숙하는 요사채의 담당자에게 보고한 뒤 연수당에 들어가도록 하였다.<sup>60)</sup>

승려가 아프면 L-②와 ③처럼 특정한 염불을 외우도록 하였다. 병세가 위중해지면 아미타불을 청하는 L-③의 염불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연수당에서 보살피는 승려의 병세가 심각해지면 해당 사찰의 유나 이하의 직책들이 모여 의논한 뒤 유언을 받아 적고, 관청에서 지급한 물품들을 회수하도록 하였다. 병세가 위급해져도 관청에 알렸으며, 사망한 뒤에는 빈소를 차릴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대장도감에서 선원청규를 관각하였던 이유는 사찰에서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선원청규』의 연수당 제도가 사찰에서 제대로 지켜졌을까? 고려시대의 사찰 건물 가운데 연수당이나 성행당이라는 명칭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면, 청규의 연수당제도가 지켜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전하는 고려시대 자료 가운데 연수당과 관련된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조선 초기 문인 姜碩德(1395~1459)은 개성의 오관산 흥화사에 있는 준화상에게 보낸 서신에서 “연수료에 누워 있으니 외로운 등불이 벽을 비치고, 꽃이 떨어지는 것이 보이듯 눈이 어릿어릿하면 염불을 하건 불경을 암송하건 언지 못하리라<sup>61)</sup>”라고 하였다. 조선 초기에 연수당제도가 시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영조 때의 兪拓基(1691~1767)가 친구들과 해인사를 방문한 뒤 남긴 유람기를 통해 조선시대 해인사에 연수당 제도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해인총림에는 승려들이 아프면 거주하는 성행당이 있었다고 한다.<sup>62)</sup> 『선원청규』의 연수당 규범이 조선 후기 해인사에서 성행당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비록 연수당을 언급하는 직접적인 자료는 남아있지 않지만, 고려에

로 불렀다고 한다. 불교 사전(<http://dictionary.buddhistdoor.com>)에서 재인용.

61) 『동문선』 권64, 「寄潛和尚書」, “臥在延壽寮裏 孤燈照壁 眼花落地 念佛也不得 誦經也不得”.

62) 兪拓基 撰, 『知守齋集』 권15, 「記游伽倻記」, “上有大藏經印本 其後有雙蓮堂 轉生寮 前有窮女堂 可鑑寮 正門外 有清虛寮 四雲堂 明鏡堂 又有省行堂 舍病僧處”.

57) 앞과 같음.

58) 위와 같음.

59) 앞의 책, 277쪽.

60) 연수당은 延壽院 延壽寮 將息寮 省行堂 重病閣(閣) 涅槃堂 無常院(堂) 등으

이미 연수당 관련 규범이 지켜졌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자료로서 다음을 들 수 있다.

M-① (중국의) 吳楚(강남지방) 지역에 머물 때에 鐵山 紹瓊선사의 도행이 대단히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모시고 고려로 돌아와서, 3년간 모시니 소경선사도 크게 기대하였다. 소경선사가 중국으로 돌아갈 때 스님은 龍泉寺의 주지가 되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돌아갈 때 스님은 『禪門清規』를 가지고 실행하였다. 그 후 선원사에서 15년간 주지하면서 선문의 종지를 드날려 나라의 모범이 되었다. 보광사로 온 것은 두 번째 사용된 至元 2년(1336)이었다.<sup>65)</sup>

M-② 옛날에 삼한의 큰 스님인 원명국사가 세속의 영예를 버리고 (은거하여) 그 뜻을 온전히 하려고 하자 고려국왕(충숙왕)이 재상인 張流을 보내 林州까지 뒤쫓아 가게 하였다. 임주에는 옛날부터 보광사가 있었는데, 계곡과 산이 그윽하고 아름다웠다. (이곳의) 나이 든 스님 惠湛과 達閑 등이 상사 田冲用과 함께 국사를 만류하며 이곳에 머물게 하였다. 국사의 문인이 3천여 명을 헤아렸으므로 이들을 다 수용하기에 건물이 부족하였다. 이에 양광도 안렴사인 崔佐佑가 휘하의 관원들을 이끌고 증축하려고 하니, 밀고 가까운 곳에서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시주하는 사람들이 구름과 같았다. 승려들의 요사채와 손님들이 머무는 방, 창고, 주방에 이르기까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모두 5백 칸의 건물이 완성되었다.<sup>64)</sup>

위의 자료 M-①과 ②는 모두 충숙왕대의 원명국사 忠鑑(1275~1339)이 부여 성주산에 있던 보광사를 증창한 것을 기념하는 비문이다.<sup>65)</sup>

63) 危素撰, 「高麗林州大普光禪寺重剎碑」, 「宿留吳楚 聞鐵山禪師 道行甚高 迎之東還 師執侍三載 瓊公甚期待之 及瓊公辭歸 師主龍泉寺 始取百丈海禪師 禪門清規行之 後住禪源寺者 十有五年 弘揚宗旨 爲國裕式 其來普光也 寔再紀至元之二年」.

64) 앞과 같은, 「昔三韓 大浮圖圓明國師 謝絕世榮 歸求其志 高麗國王遣宰相張沆追及於林州 州故有普光寺 溪山幽勝者 宿惠湛達閑等 與尚書田冲用 邀留國師於此 其門人三千餘 指室屋不足 以容楊廣道拔廉崔君文 佑率其官屬 謀爲增葺 遠近聞風 而至者雲 委僧寮資 館倉庫庖廚 無不畢備 爲屋凡五百間師之」.

충감은 7살에 출가하여 19살에 승과에 합격한 뒤 중국을 유람하다가 중국 승려 철산선사 소경을 고려로 모셔와 3년간 함께 지냈다.<sup>66)</sup> 소경이 돌아간 뒤 충감은 용천사의 주지로 있으면서 백장회해의 청규를 시행하고 이후 선원사 주지를 15년간 역임하였다는 것이 자료 M-①에 전하는 내용이다.<sup>67)</sup>

그런데 여기서 충감이 주지로 있을 때 백장의 청규를 철저히 지켰다는 것을 비문에 굳이 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고려시대 사찰에서 선원의 규범이 되는 청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충감은 백장회해의 청규를 더욱 더 철저히 지켰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충감이 중국 남종선의 법맥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철산선사 소경은 송말원초의 선사 蒙山德興(1232~?)의 제자로서,<sup>68)</sup> 당시 고려 불교계는 덕이선사의 붐이 불었다고 할 정도로 그의 선풍을 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예컨대 보각국사 일연의 제자 보감국사 混丘도 오나라의 異蒙山 선사가 일찍이 無極說을 지어서 바다를 왕래하는 배편에 붙여왔다고 하여 자신의 호를 無極老人이라고 하였다.<sup>69)</sup> 그와 교류하는 것이 당대 지식인의 표상처럼 여겨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고려후기의 대표적인 문인이었던 이승휴(1224~1300) 역시 그와 서찰을 통해 몽산의 법어를 받았다.<sup>70)</sup> 고려사회에 대한 덕이선사

65) 당시로는 드물게 원나라의 문장가 위소(1303~1372)에게 글을 받아서 만든 비문이다.

66) 철산선사 紹瓊에 관해서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허홍식, 「고려에 남긴 鐵山瓊의 행적」, 『한국학보』 11, 1985; 황인규, 「고려후기 禪宗山門과 元나라 禪風」, 『중앙사론』 23, 2006.

67) 박윤진, 앞의 책, 2006, 137~138쪽.

68) 덕이선사는 덕이본 『육조단경』의 저자로 유명한데, 남약의 21세손으로 腕山 正凝禪師의 법을 이었다고 한다. 덕이선사에 대해서는 인경, 「몽산덕이와 고려후기 간화선사상 연구」, 명상상담연구원, 2009.

69) 李齊賢撰, 「瑩源寺寶鑑國師碑銘」, 『東文選』 권118, 「中吳蒙山異禪師 嘗作無極說 附海舶以寄之 師默領其意 自號無極老人」.

의 영향력은 마침내 보계존자 혜근 즉 懶翁(1320~1376)이 몽산의 범어 집을 편찬하기까지에 이르렀다.<sup>71)</sup>

충감은 발 빠르게 몽산선사의 제자를 직접 고려에 모셔왔고, 또 백장의 선문청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이 중국 남종선의 자랑스러운 선풍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였던 것이다.

자료 M-②에 따르면, 충감은 국사가 된 뒤 부여에 있던 보광사를 500칸이나 되는 대사찰로 중창하면서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 뜻은 선원청규에 맞도록 보광사의 모든 전각과 건물을 지었다는 의미라고 파악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당연히 승려가 병들면 거처하는 연수당이나 성생당이 있었을 것이다. 즉 고려 후기에는 몽산 덕이선사의 선풍이 유행하면서 선원청규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고, 여기에는 질병에 걸린 승려에 대한 제반 규정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파악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일반 승려가 질병에 걸리면, 『선원청규』에 입각하여 약을 복용하고 정양을 할 수 있는 특수 공간에 머물면서 치료를 받았다. 질병 치료를 염원하는 염불 치료법도 이루어졌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고려 승려비문에 나타난 자료를 중심으로 승려들의 질병과 그 치료를 통해 고려시대 불교 의학의 한 단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승려 비문의 주인공들은 고려시대의 불교계를 이끌

어 갔던 지도자로서, 불교계를 영도하는 지도적인 위치에 오르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다. 따라서 대부분 50대 이상의 나이에 왕사나 국사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장수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80과 90세까지 장수하는 경우가 많았고, 노환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이 앓았던 질병은 일반인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 발배와 이질, 그리고 만성질환인 중풍, 소화불량 등을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승려들의 생활습관에 따른 운동계 질환을 추정해보았다.

노환으로 사망하기에는 아직 이른 나이인 50대나 60대 초반에 사망한 사례는 대부분 특정 질환을 앓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57세의 나이로 유배 가는 도중 급사한 나옹화상 혜근의 사례는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승려가 병이 들면 이들은 사찰내 불교 의학에 입각한 섭생과 의료 서비스를 받았으며, 신분에 따라 행해진 치료가 같지 않았다. 국사나 왕사의 경우, 평소 국왕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심각한 질병에는 어의가 파견되어 치료를 받았다. 일반 승려의 경우, 사찰에서 제공되는 의료 시스템, 즉 연수당 제도에 의거하여 휴가를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고려시대 사찰이 왕공귀족에게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연수당 제도와 같은 의료 서비스가 작동하였기 때문이다.

한국 중세의학의 특징 중의 하나가 국가 권력이 의료 전문인력과 고급 약재를 독점하여, 신민을 통치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의료를 이용하였다는 점이라고 할 때,<sup>72)</sup> 이들 왕사와 국사 역시 그 대상이었다. 최씨 무신집권기에는 시혜의 주체가 최씨 집정자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포함되지 못하는 승려들은 사찰 내의 치료제도, 즉 연수당 제도를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하였다. 승려들의 질병과 치료,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모두 정해진 규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다. 염불과 기도

70) 李承休 撰, 『上蒙山和尚謝賜法語』, 『動安居士集』 雜著一部를 통해 이승휴 역시 蒙山和尚과 서신교환을 통해 그와 친교를 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1) 竹越孝, 『蒙山和尚法語略錄』 校本, 『KOTONOHA』 53, 古代文字資料館發行, 2007 (<http://www.for.aichi-pu.ac.jp/museum/pdf2/takekoshi53.pdf>).

72) 이에 관해서는 이현숙, 『한국중세의학의 기점』 『한국고대사탐구』 10, 2013에서 상론하였다.

이외에도 이들은 약물을 이용한 치료를 행하였을 것이나, 불교 사찰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약을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것은 차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高麗圖經』 『東國李相國集』 『東文選』 『東醫寶鑑』 『三國史記』 『太平聖惠』 『鄉藥集成方』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향약집성방』, 일월서각 복각본, 1993.

박윤진, 『고려시대 왕사-국사연구』, 경인문화사, 2006.

신공, 『청규와 선원문화-의식주를 중심으로-』, 부다가야, 2008.

이경록, 『고려시대 의료의 형성과 발전』, 해안, 2010.

이지관, 『교감역주 역대 고승비문』 고려편 1,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4.

이지관, 『교감역주 역대 고승비문』 고려편 2,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5.

이지관, 『교감역주 역대 고승비문』 고려편 3,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0.

朝鮮總督府 편, 『朝鮮金石總覽』, 朝鮮總督府, 1919.

최법혜 역주(자카 종색선사 원저), 『고려판 선원청규 역주』,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1.

허홍식, 『금석전문』 중세 상, 아세아문화사, 1984.

허홍식, 『금석전문』 중세 하, 아세아문화사, 1984.

竹越孝, 『蒙山和尚法語略錄』 校本, 『KOTONOHA』 53, 古代文字資料館發行, 2007.

서은미, 「『선원청규』를 통해 본 송대 禪宗寺院의 운영과 茶禮」 『동양사학연구』 108, 2009.

서은미, 「『선원청규』와 청규의 일본 전래」 『역사와 세계』 36, 2009.

손흥렬, 「삼국시대의 佛敎의학」 『한국불교문화사상사』 上, 1992.

여인석·박형우, 「우리나라 고대 불교의학의 한 단면 : 원효의 경우」 『의사학』 4-2, 1995.

오재근·전중옥·신동원, 「신라 승려의 『금광명경』 「체병품」 주석을 통해 살펴본 한국 고대 불교의학」 『의사학』 25-3, 2016.

윤경일, 「승려의 질병 특성과 그 치료에 관한 고론」 『대한한약』 2, 1999.

이현숙, 「고려시대 관료제하의 의료와 민간의료」 『동방학지』 139, 2007.

이현숙, 「고려 일상생활의 질병과 치료」 『은지논총』 20, 2008.

주제어 | 고려, 불교 의학, 치료, 질병, 선원청규, 사찰, 왕사, 국사

투고일 : 2017. 1. 11      심사개시일 : 2017. 1. 25      게재확정일 : 2017. 2. 8

- 이현숙, 「고려시대 역병인식-질진 장역 온역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30, 2008.
- 이현숙, 「전염병·치료·권력 : 고려 전염병의 유행과 치료」 『이화사학연구』 34, 2007.
- 이현숙, 「질병, 치료, 종교 : 한국 고대 불교의학」 『한국사상과 문화』 48, 2009.
- 이현숙, 「한국중세의학의 기점」 『한국고대사탐구』 10, 2013.
- 이현숙·권복규, 「고려시대 질병관과 전염병관 : 향약구급방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88, 2007.
- 정재일, 「자각종색의 『선원청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황인규, 「고려후기 선종산문과 원나라 선풍」 『중앙사론』 23, 2006.
- 허홍식, 「고려에 남긴 鐵山瓊의 행적」 『한국학보』 11, 1985.
- Lee, Hyunsook, "The Miasma Epidemic of 1018 and Medical Policies of the Goryeo dynasty,"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11 no.4,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08.

## Abstract

A study of the Buddhist Medicine in Goryeo (918-1392) :  
The Diseases and The Cures of The Buddhist Monks  
in Seon Monasteries

Lee, Hyun-sook

This paper aims to research what kind of diseases the Buddhist monks had suffered and how they were cured in Buddhist seon monasteries(禪院), using the inscriptions of Buddhist National Priests(國師) and Royal Priests(王師) in Goryeo Dynasty. From their life stories and achievements in the epitaphs, I found the descriptions of Balbae(發背 : the abscess on the back), dysentery(痢疾) and chronic wind disease(風痺, stroke), etc.. I presume musculoskeletal disorders owing to excessive training. It depended on their social status for the cures. For the high Buddhist monks, the medical cares were provided by king, such as national priest and royal priest. For the common monks, there was a healing system and a specific place in the Buddhist seon monastery, where many monks and workers resided. It was called Yeon-su-dang(延壽堂 : room for life extension).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of Seon Monastery(禪院清規), published by Song(宋) China's Buddhist monk Cijue Zongze(慈覺宗鑑, 910~1092) in 1103, there were several disciplines for sick monks in seon monastery. When the Buddhist monks got sick, they had to chant to Amitabha(阿彌陀佛), and took medicine out of duties in Yeon-su-dang. There were also some disciplines regarding how to die and how to arrange the funeral for dead Buddhist monk in the Regulations. From the inscriptions of the Buddhist monks in Goryeo, I discovered that the Regulations were strictly observed in seon monasteries



for sick monks and funeral procedure.

Key words : disease, cure, healing system, Buddhist seon monasteries(禪院),  
Regulations of Seon Monastery, Goryeo, Buddhist National  
Priests(國師), Royal Priests(王師)